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6, No.1, 64—76, 2000.

주요개념 : 학습유형, 선호 간호분야, 간호교육

교육과정별 간호학생의 학습유형과 간호분야 선호에 관한 일 연구*

이 명 옥**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수의 일방적 지침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수-학생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의 활용이 양질의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중심 간호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

Kolb(1984)는 사람마다 정보와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경험, 지각, 인지 및 행동 개념에 기초하여 경험적 학습이론과 학습유형개념 및 학습유형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경험적 학습이론은 인간을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총체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지능, 감성, 행동 등 모든 능력이 학습상황에 충분히 활용될 때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유형은 학습의 주기를 구성하고 있는 네가지 학습단계 중에서 학습자가 어느 단계를 더 선호하는 가에 따라 특정한 학습유형을 갖게 된다. 학습유형은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한 방식이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학습유형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학습유형은 학습효과 및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간에는 학습유형이 유사하며, 유사한 학습유형을 지닌 학습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전공 및 직업선정과 같이 미래의 진로결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한국에는 4년제 정규과정(BSN)과 2년제 편입과정(RN-BSN) 등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편입과정(RN-BSN)은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편입하는 과정으로서 편입과정 학생의 대부분은 간호사이며, 개인의 성장 및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간호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이다. 편입과정이 법적으로 발족된 시기는 1996년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학교에서 약 1,170여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700여명이 졸업하였다(간협신보,

* 이 연구는 한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2000년 2월 24일자). 대부분 두 가지 교육과정이 한 학교에서 같은 교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규과정과 편입과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일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별 학생들의 학습유형과 선호하는 간호분야간의 상호관련성과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중심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정규과정 간호학생과 편입과정 간호학생의 학습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정규과정 및 편입과정 간호학생들의 학습유형과 선호하는 간호분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학습유형, 선호분야, 교과과정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학습단계:

이론적 정의: 학습은 경험을 지식, 태도, 기능 및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Greenberg & Baron, 1993),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학습단계를 포함한다(Kolb, 1984). 학습단계는 ①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 ②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 ③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 ④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 등 네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이 네가지 학습단계들은 주기적으로 반복·순환하며 지속하는 특성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Kolb, 1984).

·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의 학습단계: 학습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감각을 동원한 개방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행위.

· 반추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의 학습단계: 구체적인 경험들을 분류하여 보다 정밀하게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한 학습행위.

·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의 학습단계: 도출된 의미 있는 정보를 개념, 모델, 이론 등 논리적인 관계로 체계화하는 학습행위.

·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학습단계: 설정한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 이론 및 모델 등을 실제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작업을 통한 학습행위.

학습유형:

학습유형은 학습자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학습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네가지 학습단계를 감각-사고와 관찰-실험의 관계에 따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인접한 학습단계를 결합하여 확산형(diverger), 융합형(assimilator), 집중형(converger), 적응형(accomodator)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학습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Kolb, 1984).

· 확산형:

이론적 정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상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견해로 접근하는 학습유형.

조작적 정의: 설문문항 중 구체적 경험과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주로 선호한 경우.

· 융합형:

이론적 정의: 귀납적 방법론에 의하여 이론 및 모델을 설정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경험자체보다는 개념발굴 및 모델설정 등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학습유형.

조작적 정의: 설문문항 중 추상적 개념화와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주로 선호한 경우

· 집중형: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이론과 전문기술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유형.

조작적 정의: 설문문항 중 추상적 개념화와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를 주로 선호한 경우

· 적응형:

이론적 정의: 논리적·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이 풍부하고 인간을 상대로 일을 계획하여 수행하기를 선호하는 학습유형.

조작적 정의: 설문문항 중 구체적 경험과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를 주로 선호한 경우

Ⅱ. 문헌 고찰

1. 콜브의 경험적 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과 학습유형(Learning Style)

콜브(1984)는 사람마다 학습,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조사 연구한 결과, 학습과정은 주기적인 네가지 학습단계의 지속적인 과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학습초기는 현상이나 사물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분해해 보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의 학습단계에서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다양한 정보의 축적을 토대로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reflective observation)로 진전되고, 나아가 반추된 경험내용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개념을 도출하며 개념간의 관계, 모델 및 이론 등을 구축하는 추상적 개념화 학습단계(abstract concetualization)로 진행되며, 더 나아가 설정된 가설, 모델 및 이론 등을 실제상황에서 검증하는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active experimentation)로 진전된다.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에서는 실제상황과 접촉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다시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학습과정은 네가지 학습단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경험하는 연속적인 진행과정이며, 경험은 학습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자 즉,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지 학습단계에서 요구되는 바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 개인마다 교육, 환경, 경험 및 선천적 성향 등의 차이로 특정한 학습단계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다. 학습유형은 전술한 네가지 학습단계 중에서 빈번히 활용하는 인접한 학습단계를 결합함으로서 확산형, 융합형, 집중형 및 적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사한 학습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와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이 유사하여 유사한 학문이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Kolb, 1984).

2. 학습유형과 전문분야

확산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사람은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행동보다는 다각도로 관찰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주로 인간에게 서비스하는 전문직과 예술 및 오락분야로서, 간호사, 사회사업가, 상담가, 배우, 연극인, 음악가 및 디자이너 등이며, 학문분야는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신문방송학, 예술분야 등이다. 융합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사람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개념화 도출 및 이론정립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가, 연구가, 교수, 도서관리인 등의 직업에 많은 분포를 보이며, 수학, 물리학, 생물학, 법학 및 교육학 등의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집중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사람은 이론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엔지니어, 컴퓨터프로그래머, 임상의 등 전문적인 기술직에 많으며, 기계공학, 물리학, 농학, 경제학, 의학 등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응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사람은 능동적인 참여와 행동을 즐기며 일을 진척시키는 수행능력이 뛰어나서 판매직, 경영자, 정치가, 관리자, 교사

등에 많으며, 주로 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많은 분포를 보인다(Kolb, 1984; Laschinger & Boss, 1984).

이와 같은 학습유형별 특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인간의 삶은 다양한 문제의 지속적인 발생과정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습단계가 균형 잡힌 학습유형, 즉, 학습단계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학습유형이 바람직하다(Kolb, 1984). 경험적 학습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별, 학년별 학습유형의 변화와 그 요인의 파악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이다. 학문분야별 학습유형을 조사 연구한 Fox와 Ronkowski(1997)에 의하면, 정치학과 학생 260명의 학습유형 중 융합형이 가장 많았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논리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학습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을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인지기능의 발달과 학문적 깊이의 증가 및 사회성의 향상으로 설명하였다. Svinicki와 Dixon(1987)은 학습유형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학습단계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빈번한 학습경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Kreber(1998)는 사회인문학과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유형과 그들의 직관적·논리적 문제해결 능력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학습유형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여, 학습유형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Belenky, Clinchy, Goldberger & Tarule, 1986; Kolb, 1993; Perry, 1981).

간호분야에서는 학습유형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희소한 편이다. Christiansen, Lee, and Bugg(1979)는 53명의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조사 연구한 결과, 70%가 적응형 혹은 확산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Huch(1981)에 의하면, 간호학생의 과반수 이상(64%)이 적응형이나 확산형이었다. 268명의 비교적 많은 수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aschinger & Boss(1984)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확산형이나 적응형이었으며, 이중 65%가 간호학을 선호한 반면, 융합형이나 집중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학생은 40%만이 간호학을 선호하였다. Linares(1999)는 간호학생과 간호학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건강관련 분야 종사자와 학생, 총 589명을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집중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브(1976)는 경영대학원에 등록한 13명의 간호사의 학습유형이 대부분 집중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 과정의 간호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유형별로 미래에 일하고 싶은 분야를 조사한 결과(Laschinger & Boss, 1984), 학습유형에 관계없이 76%가 병원을, 20%는 지역사회 간호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선호분야에 차이를 보여, 25세 미만의 학생은 84%가 병원을, 그 이상은 병원과 지역사회를 고르게 선호하였다.

Plovnick(1975)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과 미래의 선호분야를 조사한 결과, 확산형이나 적응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학생은 가정의나 임상의를 선호한 빈도가 높은 반면, 집중형이나 융합형의 학습유형을 지닌 학생은 기초의학이나 연구분야를 선호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학습단계에 따른 학습유형의 정확한 파악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다수 간호학생들의 학습유형이 확산형이나 적응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학생 중에 대학원생이나 간호학 교수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집중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Kolb, 1976; Linares, 1999), 간호분야라 하더라도 보다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학습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대학 간호학과에 등록한 정규과정 학생과 편입과정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생 218명(정규과정 125명, 편입과정 9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규과정 학생은 4년제 정규 간호학 교육과정의 1,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3,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학생을 의미하며, 편입과정 학생은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2년간의 간호학사 편입교육과정(RN-BSN 과정)에 등록한 3, 4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편입과정(RN-BSN)이 3, 4학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비교할 목적으로 정규과정의 경우 3, 4학년 학생들만을 포함시켰다. 정규과정 1, 2학년은 일종의 예비과정이며 3, 4학년에서 임상과 이론을 모두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가 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학습유형과 관련되어 교육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인정받고 있는 콜브(1984, 1993)의 학습유형도구를 기본으로 하고 분석상 용이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설문방법을 수정한 간이학습유형도구(Simplified Learning Style Instrument)이다. 콜브가 제작한 학습유형도구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가지 학습단계별 점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의 합은 12-48점 범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가 0.78-0.84(Kolb, 1976; Plovinick, 1975)이며, 이미 많은 연구가 경험적 학습이론과 학습유형도구를 지지하므로(Kolb, 1976; Kolb & wolf, 1981; Plovinick, 1975) 타당도가 입증된 것이다.

간이학습유형도구는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습단계별로 각각 3개씩 문항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선호도가 높은 순위로 4, 3, 2, 1의 점수로 표시하여 학습단계별 점수의 합계는 3-12점의 범위가 된다. 학습유형은 학습단계의 선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습단계별 선호도를 측정·분석하여 적응형, 확산형, 집중형 및 융합형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습단계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은 특정한 학습단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거나 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연구도구의 조사-재조사 신뢰도는 0.78-0.84였다. 학습단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 0.761이었으며, 학습단계별 문항의 α계수는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가 0.701,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가 0.715,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가 0.713,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가 0.720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9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각 학년 대표자를 통하여 수업이 없는 시간을 파악한 후 강의실에서 대상자들과 만나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의 내용과 기재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으며, 자발적인 참여와 정직한 응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응답지는 각 학년별로 7일 이내에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AS Release 6.12를 사용하였으며, 교육과정별·학년별 학습단계, 학습유형, 미래의 선호간호분야 및 교과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분포, percentile 및 x^2 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자(n=218)가 선호한 학습단계별 최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습단계를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학습단계의 표본수가 n=265로 증가하였으나,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요한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규과정 3학년이 58명, 4학년이 67명으로서 총 125명이었으며, 편입과정 3학년이 58명, 4학년이 35명으로 총 93명이었다. 연령은 정규과정 3학년이 19-26세로 평균 21세, 4학년은 20-26세로 평균 22세였으며, 편입과정 3학년은 22-43세로 평균 29세, 4학년은 22-38세로 평균 32세였다. 편입과정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평간호사(68.1%)로서 주로 병원(84.2%)에서 근무하며 간호직(89.2%)에 종사하고 있었다. 경력은 과반수(53.1%)가 5년미만이며, 대다수가 결혼(74.8%)하였으며, 종교(62.7%)를 가지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 전체적 학습유형의 빈도는 확산형, 적응형, 집중형 및 융합형의 순위였으며, 과반수 이상(66.5%)이 확산형 내지는 적응형 중 하나에 해당되었다. 과정별로 보면, 정규과정은 적응형, 확산형, 집중형 및 융합형의 순위로 비교적 균등한 빈도를 보였다. 편입과정은 확산형, 적응형, 융합형 및 집중형의 순위로 확산형이 적응형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융합형이나 집중형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교육과정별·학년별 학습유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과정 3학년의 대부분(88.0%)이 적응형이나 확산형이었으나, 4학년의 대부분(71.6%)은 집중형 혹은 융합형이었

<표 1> 교육과정별 간호학생의 학습유형 (n=218)

	확산형	융합형	집중형	적응형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과정	30 24.0	26 20.8	29 23.2	40 32.0	125 100.0
편입과정	45 48.4	10 10.8	8 8.6	30 32.3	93 100.0
합	75 34.4	36 16.5	37 17.0	70 32.1	218 100.0

(x^2=19.175, df=3, p=0.001)

<표 2> 교육과정별·학년별 학습유형 (n=218)

	확산형	융합형	집중형	적응형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3학년	20 34.5	4 6.9	3 5.2	31 53.5	58 100.0
4학년	10 14.9	22 32.8	26 38.8	9 13.4	67 100.0
편입3학년	31 53.4	6 10.3	3 5.2	18 31.0	58 100.0
4학년	14 40.0	4 11.4	5 14.3	12 34.3	35 100.0
합	75 34.4	36 16.5	37 17.0	70 32.1	218 100.0

(x^2=73.823, df=9, p=0.001)

<표 3> 교육과정별 학습단계 (n=265)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		반추적 관찰		능동적 실험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과정	51	34.2	17	11.4	41	27.5	40	26.8	149	100.0
편입과정	70	60.3	11	9.5	20	17.2	15	12.9	116	100.0
합	121	45.6	28	10.6	61	23.0	55	20.8	265	100.0

(x^2=19.048, df=3, p=0.001)

다. 편입과정 3, 4학년의 대부분은 확산형이나 적응형으로 정규과정 3학년과 유사하였으나, 정규과정 4학년의 학습유형은 타그룹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과정별 학생들이 선호한 학습단계의 빈도를 보면(<표 3> 참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학습단계는 구체적 경험(45.6%)이었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은 학습단계는 추상적 개념화(10.6%)였다. 정규과정 학생은 구체적 경험, 반추적 관찰 및 능동적 실험의 학습단계를 고르게 선호하였으나, 편입과정 학생은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를 선호한 빈도(60.3%)가 높은 반면,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를 선호한 빈도(9.5%)는 매우 낮았다.

교육과정별·학년별로 학생들이 선호한 학습단계의 빈도를 보면(<표 4> 참조), 정규과정 3학년 그룹의 82.6%가 구체적 경험 혹은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선호하였으나, 정규과정 4학년 그룹에서는 75.7%가 능동적 실험이나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선호하였다. 한편, 편입과정 3학년의 79.7%는 구체적 경험이나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선호하였으며, 편입과정 4학년의 73.8% 는 구체적 경험 혹은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를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정규과정 4학년에서만 능동적 실험 내지는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가 주된 학습단계로 나타나 다른 세 그룹의 주된 학습단계인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와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년에서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를 선호한 빈도는 가장 낮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분야를 교육과정별로 보면(<표 5>참조), 전체적으로 간호임상, 간호

<표 4> 교육과정별·학년별 학습단계 (n=265)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반추적 관찰		능동적 실험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 3학년	46	61.3	4	5.3	16	21.3	9	12.0	75	100.0
4학년	5	6.8	13	17.6	25	33.8	31	41.9	74	100.0
편입 3학년	47	63.5	7	9.5	12	16.2	8	10.8	74	100.0
4학년	23	54.8	4	9.5	8	19.0	7	16.7	42	100.0
합	121	45.6	28	10.6	61	23.0	55	20.8	265	100.0

(x^2=68.153, df=9, p=0.001)

<표 5> 교육과정별 미래의 선호간호분야 (n=218)

	임상		연구		교육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과정	101	80.8	11	8.8	13	10.4	125	100.0
편입과정	46	49.5	13	14.0	34	36.6	93	100.0
합	147	67.4	24	11.0	47	21.6	218	100.0

(x^2= 24.636, df=2, p=0.001)

<표 6> 정규과정 학생의 학습유형별 미래의 선호간호분야 (n=125)

	임상		연구		교육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확산형	22	73.3	2	6.7	6	20.0	30	100.0
융합형	22	84.6	4	15.4	0	00.0	26	100.0
집중형	25	86.2	4	13.8	0	00.0	29	100.0
적응형	32	80.0	1	2.5	7	17.5	40	100.0
합	101	80.8	11	8.8	13	10.4	125	100.0

(x^2=14.741, df=6, p=0.022)

교육 및 간호연구의 순위였다. 정규과정 학생들은 특히 간호임상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편입과정 학생들은 간호임상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분야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과정 학생들이 선호한 간호분야를 학습유형별로 보면(<표 6> 참조), 임상에 대한 선호는 학습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80.8%), 집중형인 경우에도 임상에 대한 선호가 8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선호한 분야를 보면, 확산형은 교육(20.0%)을, 융합형은 연구(15.4%)를, 집중형은 연구(13.8%)를, 적응형은 교육(17.5%)을 선호하였다.

편입과정 학생들이 선호한 간호분야의 빈도를 학습유형별로 보면(<표 7> 참조), 모든 학습유형이 간호임상과 간호교육 분야를 주로 선호하였다. 확산형은 교육(40.0%)을 더 선호하였으며, 융합형도 교육(60.0%)을 더 선호하였는데 비해 집중형과 적응형은 모두 임상을 더 선호하였다.

선호 간호분야를 교육과정별·학년별로 보면(<표 8> 참조), 간호임상에 대한 선호가 정규과정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각각 65.5%와 94.0%로 높았으며, 편입과정 3학년과 4학년에

<표 7> 편입과정 학생의 학습유형별 미래의 선호간호분야 (n=93)

	임상		연구		교육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확산형	17	37.8	10	22.2	18	40.0	45	100.0
융합형	4	40.0	0	0.0	6	60.0	10	100.0
집중형	6	75.0	1	12.5	1	12.5	8	100.0
적응형	19	63.3	2	6.7	9	30.0	30	100.0
합	46	49.5	13	14.0	34	36.6	93	100.0

(x^2=11.659, df=6, p=0.070)

<표 8> 교육과정 및 학년별 미래의 선호 간호분야 (n=218)

	임상		연구		교육		합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정규 3학년	38	65.5	7	12.1	13	22.4	58	100.0
4학년	63	94.0	4	6.0	0	0.0	67	100.0
편입 3학년	23	39.6	6	10.3	29	50.0	58	100.0
4학년	23	65.7	7	20.0	5	14.3	35	100.0
합	147	67.4	24	11.0	47	21.6	218	100.0

(x^2=54.575, df=6, p=0.001)

서는 각각 39.6%와 65.7%였다. 편입과정 3학년은 50.0%가 교육을 선호하여 편입과정 4학년 및 정규과정 학생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정규과정 3학년도 교육을 선호한 비율이 정규과정 4학년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주요 학습유형, 학습단계 및 선호 간호분야는 두 교육과정간에 빈도에서 차이(<표 9> 참조)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과정보다는 편입과정 학생들이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를 훨씬 더 선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이수하는 학년별 교과과정을 학점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규과정은 총 4학기 동안에 강의 38학점과 실습 23학점으로 총 61학점을 이수하며, 편입과정은 총 4학기 동안에 강의 66학점과 실습 5학점으로 총 71학점을 이수함으로 편입과정의 실습학점은 정규과정보다 적다. 성인, 모성, 아동, 정신, 지역사회 간호학 등 다섯 가지의 주된 간호과목 외에 제공되고 있는 특수과목을 학년별로 보면, 정규과정 3학년에서는 건강교육 및 간호정보학, 4학년에서는 간호연구 및 전문직 이슈, 편입과정 3학년에서는 교수법 외 교양과목, 편입과정 4학년에서는 간호연구, 건강사정 및 가정간호 등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임상과 간호교육을 미래의 간호분야로 선호한 경우는 정규과정과 편입과정 3학년이며, 이 시기에는 건강교육 또는 교수법 등 교육관련 과목이 시행되고 있다. 간호임상 외에 간호연구가 선호된 경우는 정규과정 4학년과 편입과정 4학년으로서 이 시기에는 간호연구 과목이 시행되고 있다.

<표 9> 교육과정별 주요 학습유형, 학습단계 및 선호분야

	학습유형	학습단계	선호분야
정규과정	적응형(32.0%), 확산형(24.0%)	구체적 경험(34.2%) 반추적 관찰(27.5%)	간호임상(80.8%) 간호교육(10.4%)
편입과정	확산형(48,4%) 적응형(32.3%)	구체적 경험(60.3%) 반추적 관찰(17.2%)	간호임상(49.5%) 간호교육(36.6%)

<표 10> 학년별 주요 학습유형, 학습단계, 선호분야 및 교과과정

	학습유형	학습단계	선호분야	교 과 과 정			
				강의	실습	합	특수과목
정규 3학년	적응형 확산형	구체적 경험 반추적 관찰	간호임상 간호교육	26	11	37	건강교육 간호정보학
4학년	집중형 융합형	능동적 경험 반추적 관찰	간호임상 간호연구	12	12	24	간호연구 전문직 이슈
편입 3학년	확산형 적응형	구체적 경험 반추적 관찰	간호교육 간호임상	36	1	37	교수법, 간호정보학 교양과목(다수)
4학년	확산형 적응형	구체적 경험 반추적 관찰	간호임상 간호연구	30	4	34	간호연구, 건강사정 가정간호

*교과과정의 숫자는 이수학점임.

V. 논 의

1. 전체적 학습유형

간호학생들의 학습유형은 다양하였으나, 주된 학습유형은 확산형이나 적응형이었다. 주로 선호한 학습단계는 구체적 경험과 반추적 관찰의 학습단계였으며, 선호한 미래의 간호분야는 간호임상 분야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학습유형을 확산형이나 적응형으로 제시한 콜브(1984)의 경험적 학습이론이나, 학습유형과 직업유형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라싱거와 보스(1984) 및 폭스와 론코위스키(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2. 교육과정별 특징

정규과정보다는 편입과정 학생들이 구체적 경험의 학습단계를 훨씬 더 선호하였으나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 바, 이러한 결과는 편입과정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관, 즉, 정규과정 학생보다 더 구체적일 뿐 아니라 논리적·비판적인 사고능력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견해와는 달리 임상경험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해야 할 적절한 교육-학습단계는 구체적인 경험의 학습단계를 지지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하여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단계에 적절한 경험적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다.

정규과정 학생 대다수가 간호임상을 선호한데 비해 편입과정 학생들이 간호임상과 간호교육을 비슷하게 선호한 점은, 편입과정 학생들은 이미 임상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며, 학습유형에 상관없이 25세 이하에서는 임상을 선호하였으며 25세 이상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라싱거와 보스(1984)의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3. 학년별 특징

간호임상과 간호교육을 미래의 간호분야로 선호한 경우는 정규과정 3학년 및 편입과정 3학년인 바, 이 시기는 건강교육 또는 교수법과 같은 과목이 시행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과목의 이수과정에 의한 새로운 학습경험이 미래의 선호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간호임상 외에 간호연구를 선호한 경우는 정규과정 4학년과 편입과정 4학년으로서 이 역시 이수하고 있는 간호연구과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정규과정 4학년의 주된 학습유형이 집중형과 융합형으로 나타난 결과는 저학년 뿐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확산형과 적응형이 많았다는 라싱거와 보스(1984)의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나,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기능 및 사회성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로 집중형이나 융합형이 많았다는 폭스와 론코위스키(1997)의 조사결과와 대학원에 등록한 대다수 간호사의 학습유형이 집중형이었다는 콜브(1976)의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의 주된 학습단계는 능동적 실험과 반추적 관찰이었으나, 미래의 선호분야로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임상(94%)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의 경우, 취업을 고려하여 임상분야를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규과정 4학년을 비롯하여 모든 학년에서 간호학생들의 추상적 개념화 학습단계를 선호한 빈도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인 점은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현대 간호의 방향과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특히, 편입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능력 등 폭넓은 사고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면접시에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오가

실, 1998)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한 추상적 개념화의 학습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편입과정 학생에게 자율학습과 토론식 수업운영을 활용한 결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조사결과(김희순, 오가실 및 이경자, 1999)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능력 뿐 아니라 논리적·비판적인 사고능력과 학습효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연구 결과 편입과정 학생들의 간호교육 선호가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추상적 개념화 학습단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까지 20일에 걸쳐 일 대학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이학습유형측정도구(Simplified Learning Style Inventory)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유형, 학습단계, 선호분야를 파악하고 교과과정을 검토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규과정 3, 4학년 125명과 편입과정 3, 4학년 93명으로 총 218명이었으며, 학생들의 연령분포는 정규과정이 21-22세, 편입과정이 29-32세였다. 편입과정 학생들은 대다수가 결혼생활과 병원근무 및 학생역할을 병행하는 평간호사였으며, 과반수가 5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유형은 다양하였으나 주로 확산형이나 적응형이 많았으며 가장 선호한 미래의 간호분야는 간호임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유형별로 특정한 학문분야 및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학습이론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편입과정 학생들이 주로 선호한 학습단계는 구체적 학습단계(60.3%)로서 다른 세가지 학습단계의 선호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추상적 개념화 학습단계(9.5%)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구체적인 임상경험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반면에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유형은 학습단계별 선호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균형된 학습유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편입과정 학생들의 추상적 개념화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들이 선호한 미래의 간호분야와 이 수중에 있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해결, 판단능력, 사고력 등의 향상이 편입과정에 지원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로 보고되었으며(김희순 외 다수, 1999), 편입과정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간호분야중의 하나가 간호교육인 점을 고려할 때, 각 학습단계에 대한 선호도가 균형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국내 간호학생의 학습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겠으나, 간호학생들의 학습유형 파악의 중요성과 이를 고려한 교과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간호학생과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조사와 교과과정의 도입에 따른 학습단계 및 학습유형의 전·후 변화를 측정하는 사례연구는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간협신보. RN-BSN 교육 표준화 시급하다. 2000년 2월 24일.

김희순, 오가실, 이경자 (1999). 성인학습법에 의한 학생 성과분석. 간호학탐구, 8(1), 124-136.

오가실 (1998). 전문대학 졸업간호사의 학사학

위를 위한 RN-BSN 과정. 대한간호, 37(2), 6-12.

Belenky, M. F., Clinchy, B. M., Goldberg, N. R., & Tarule, J. M. (1986).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New York: Basic Books.

Christiansen, M., Lee, P., & Bugg, P. (1979). Professional development of nurse practitioners as a function of need motivation, learning styles and locus of control. Nursing Research, 28, 51-56.

Fox, R. L., & Ronkowski, S. A. (1997). Learning styles of political science student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0(4), 732-737.

Greenberg, J., & Baron, R. (1993). Behavior in Organization(4th ed.). Boston, Mass: Allyn & Bacon.

Huch, M. (1981). Adult students' locus of control, learning styles and satisfaction with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issippi.

Kolb, D. A. (1976). Learning Style Inventory: Technical Manual. Boston: McBer and Company.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olb, D. A., & Wolf, D. (1981). Professional education and career development: A cross-sectional study of adaptive competences in experiential learning.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Depart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Cleveland.

Kreber, C.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and psychological type, and some implications for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3(1), 71-86.

Laschinger, H. K., & Boss, M. W. (1984).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and career choic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9, 375-380.

Linares, A. Z. (1999). Learning styles of students and faculty in selected health care profession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9), 407-414.

Perry, W. G. Jr. (1981). Cognitive and ethical growth: The making of meaning. In A.W. Chickering(ed.), The American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Plovnick, M. S. (1975). Primary care career choices and medical student learning styles.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0, 849-855.

Svinicki, M. D., & Dixon, N. M. (1987). The Kolb Model modified for classroom activities. College Teaching, 35(1). 141-146.

- Abstract -

Key concept: Learning style, Preferred nursing specialty, Nursing education

Learning Styles and Preferred Nursing Specialties of Nursing Students

Lee, Myu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learning styles, learning stages, and preferred nursing specialties between two groups of nursing programs, regular BSN and RN-BSN. The survey instrument was a simplified version of the Kolb's Learning-Style Instrument which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 self-reported learning style questionnaire with twelve questions related to the four learning stages.

The sample of the study was the 218 nursing students in a university in Korea which consisted of 58 junior and 67 senior students in the regular BSN program, and 58 junior and 35 senior students in the RN-BSN program.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the following.

1) Over all, the major learning style was either the diverger or the accomodator; the most preferred learning stage was the concrete experience and the leastly preferred learning stage was the abstractive conceptualization learning stage; and the most preferred nursing specialty in the future was the clinical nursing.
2) Students in the BSN program preferred four learning stages with rather equal proportion, whereas the students in the RN-BSN program preferred the concrete experience learning stage as high as 60.3% and the abstractive conceptualization learning stage as low as 9.5%.
3) For the future career, the junior students of both programs preferred clinical and educational nursing areas, and the senior students of both programs preferred clinical and research areas. The main reason of the difference seemed to result from the different courses such as Health Education or Teaching Method for the juniors and the Nursing Research for the seniors of both groups.

Because the sampl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s for the entire nursing students in Korea. Continuous studies with larger numbers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 educators, and experimental studies measuring the effects of new curricula are needed for the future.

* Assistant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Hallym Medical School, Hallym University